몽골 선교를 준비하며

분당 유아촌 목자\_전화숙

2025년 여름, 미취학지구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몽골로 해외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사역은 몽골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VBS)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양과 율동, 말씀과 공과, 간식, 그리고 다양한 K-컬처 체험, K-푸드, K-태권, K-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이며 실, 내외 활동, 연극을 통해 그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노방전도와 현지인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몽골은 인구의 약 70%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소망이며 이번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50년 전,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몽골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값진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느끼는 마음은 설렘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포함 16명의 팀원은 헤르테(몽골어로 “사랑해”)팀명처럼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12일, 19일에 진행되는 미취학 여름축제와 여러 사전 준비로 몸과 마음이 분주하지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듯 우리 팀원들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과 준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몽골 땅에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달란트를 온 맘 다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몽골 땅에서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